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 평가

인하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재학 · 박상규 · 이두익 · 정종권 · 임현경 · 차영덕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Postherpetic Neuralgia Related Korean Internet Sites

Jae Hak Lee, M.D., Sang Kyu Park, M.D., Doo Ik Lee, M.D., Jong Kwon Jung, M.D., Hyun Kyong Lim, M.D., and Young Deog Cha,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Background: There is no assessment of internet sites that carry information on chronic pain disease. So we assessed the quality of information about postherpetic neuralgia available on Korean internet sites.

Methods: The keywords 'postherpetic neuralgia', 'herpes zoster, neuropathic pain', 'herpes zoster, pain', 'herpes zoster' were searched in Korean on four search engines in Korea between the 1st to the 15th of May, 2009. We evaluated the outcome on two factors; the aspect of the contents which is sub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content and authorship, and the technical aspect including web design, and efficiency.

Results: A total of 26 internet sites were found. Among these sites, 6 (23%) informed by anesthesiologist. The average score of the 26 internet sites was only 37.4 ± 20.1 out of a total of 100. A mean score of the contents was 13.3 ± 8.3 out of 40 points, the authorship was 10.0 ± 6.7 out of 20 points, the design was 9.2 ± 5.3 out of 20 points, the efficiency was 6.8 ± 4.3 out of 20 points. When comparing the score between anesthesiologist and non-anesthesiologist, the contents was 18.7 ± 7.4 vs. 11.7 ± 7.9 , the authorship was 13.4 ± 4.7 vs. 9.0 ± 6.8 , the design was 12.5 ± 4.2 vs. 8.3 ± 5.2 and the efficiency was 6.8 ± 4.5 vs. 4.3 ± 4.0 ($P < 0.05$).

Conclusions: There is a need for mo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postherpetic neuralgia on the Korean internet by anesthesiologists. (Korean J Pain 2009; 22: 141-145)

Key Words: herpes zoster, internet, postherpetic neuralgia.

서 론

대상포진후신경통이란 varicella zoster virus가 재활성화되어 발생한 대상포진을 앓고 난 뒤 수포가 완전히 치료가 된 후에도 특징적인 신경병증 통증의 지속과 감각 이상 등이 있는 난치성 통증질환이다. 대상포진후신경통의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백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75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10명 정도로 고령에서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¹⁾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조사된 적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포진후신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보통 병원에 방문하여 질병에 관한 정보를 얻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기도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연결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에

접수일 : 2009년 5월 28일, 1차 수정일 : 2009년 6월 15일

승인일 : 2009년 7월 10일

책임저자 : 차영덕, (400-711)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Tel: 032-890-3968, Fax: 032-881-2476

E-mail: ydchaan@hanmail.net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ceived May 28, 2009, Revised June 15, 2009

Accepted July 10, 2009

Correspondence to: Young Deog Cha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Inha University Hospital, 7-206, 3-ga, Sinheung-dong, Jung-gu, Incheon 400-711, Korea

Tel: +82-32-890-3968, Fax: +82-32-881-2476

E-mail: ydchaan@hanmail.net

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의료 영역에서도 인터넷 사용을 통해 의료 정보를 습득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²⁾ 하지만 누구나 인터넷에 정보를 올릴 수 있는 특징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나, 잘못된 정보들을 일반인들이 습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확하지 못한 치료에 매달려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³⁾

대상포진후신경통을 비롯한 많은 만성통증질환에 대한 인터넷 정보의 체계적인 평가 국내에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저자는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고 마취통증의학과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평가하여 그 개선방법을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검색 사이트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 코리아(kr.yahoo.com), 네이트(www.nate.com)로 선정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글(www.google.co.kr)은 국내 점유율이 낮고 원하는 검색을 하기에 많은 설정이 필요하여 제외하였다. 검색어는 “대상포진후신경통”, “대상포진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대상포진”으로 하였다. 검색결과 4개의 검색 사이트에서 중복되어 검색된 인터넷 사이트는 한 번 검색된 것으로 하였다. 검색된 인터넷 사이트 중 링크가 잘못되거나 폐쇄된 경우, 의학정보전달보다 상품소개 및 판매의 목적만을 지닌 인터넷 사이트는 제외하였다.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 기준은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없고, 평가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문헌 검색 결과 안정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인정하여 기존의 평가 기준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Table 1).⁴⁾ 평가 항목은 크게 내용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내용적 측면 60점, 기술적 측면에 4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평가하였다. 내용적 측면의 평가 항목은 내용성과 저작성으로 나누었다. 우선 내용성에는 내용의 정확성(10점), 최신성(10점), 상담·의뢰성(10점), 자료의 출처(10점)로 하고 대상포진의 원인과 증상, 대상포진후신경통의 치료 방침과 예후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저작성은 저자의 신뢰도(5점), 저자의 연락처(5점), 인터넷 사이트의 제작

Table 1. The Rating Criteria for Assessment Internet Sites⁴⁾

Rating	Items	Score
Aspect of contents		
Content		
Compatibility	Compatibility with disease	10
Renovation	Reformation	10
Communicability	Question and answer to visitor	10
Reference	References	10
Authorship		
Authorship	Reference of speciality of author	5
Communication	Available address of author	5
Manufacturer	Nomination of author	5
Sponsor	Sponsor of the web site	5
Technical aspect		
Design		
Web design	Composition of text and graphic	20
Efficiency		
Searching	Function of searching in web site	10
Link	Link to associated page	5
Site map	Provision of site map	5
Total score		100

자와 저자(5점), 후원자(5점)로 하였다. 기술적 측면의 평가 항목은 디자인과 기능성으로 나누었고 디자인(20점)은 단독으로 평가하였고, 기능성은 검색기능(10점), 링크성(5점), 웹구성도 제공(5점)으로 평가하였다.

마취통증의학과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 여부의 평가를 위해서 평가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과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4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대상인 인터넷 사이트를 각자 평가하여 점수를 수집한 후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정보 제공자의 신분에 따라 웹사이트의 의료지식 전달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분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한의사 및 비의료인으로 분류하였다.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정보제공자를 비의료인으로 분류하였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그 외의 정보 제공자(비마취통증의학과)가 제공하는 정보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인터넷 사이트의 점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P 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2.0.0.1을 사용하였다.

결 과

평가 대상이 된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 검색에서 13건,

네이버 검색에서 15건, 야후 코리아 검색에서 21건, 인터넷 검색에서 15건이 나왔으며 이 중 중복되는 사이트와 광고사이트를 제외하고 26건이었다. 이 중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란 검색어로는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내용성 점수는 13.3 ± 8.3점, 저작성은 10.0 ± 6.7점, 디자인은 9.2 ± 5.3점, 기능성은 6.8 ± 4.3점이었다. 전체 평가 점수는 37.4 ± 20.1점이었다(Table 2).

정보제공자는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6명(23.0%), 의사 9명(34.6%), 한의사 6명(23%), 비의료인 5명(19.2%)이었다(Fig. 1).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6

Table 2. Mean Score of the Internet Sites

Rating items	Mean score
Content (40)	13,3 ± 8,3
Compatibility (10)	5,4 ± 2,8
Renovation (10)	2,3 ± 2,7
Communicability (10)	4,3 ± 3,8
Reference (10)	1,3 ± 2,6
Authorship (20)	10,0 ± 6,7
Authorship (5)	2,4 ± 1,8
Communication (5)	2,9 ± 2,2
Manufacturer (5)	2,5 ± 2,0
Sponsor (5)	2,2 ± 2,0
Design (20)	9,2 ± 5,3
Web design (20)	9,2 ± 5,3
Efficiency (20)	6,8 ± 4,3
Searching (10)	1,7 ± 2,8
Link (5)	0,6 ± 1,1
Site map (5)	2,6 ± 1,8
Total	37,4 ±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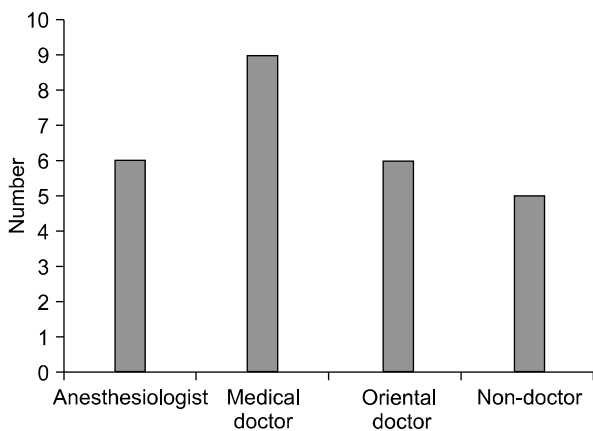


Fig. 1. The distributions of the 26 internet sites' information sources was shown.

곳 중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 교실이 한 곳, 개인의가 5곳이고, 대한마취과학회나 대한통증학회는 검색되지 않았다.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제공하는 정보와 비마취통증 의학과(의사, 한의사, 비의료인)가 제공한 정보의 질을 비교하였다(Fig. 2, 3).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평가 점수는 51.4 ± 15.6점이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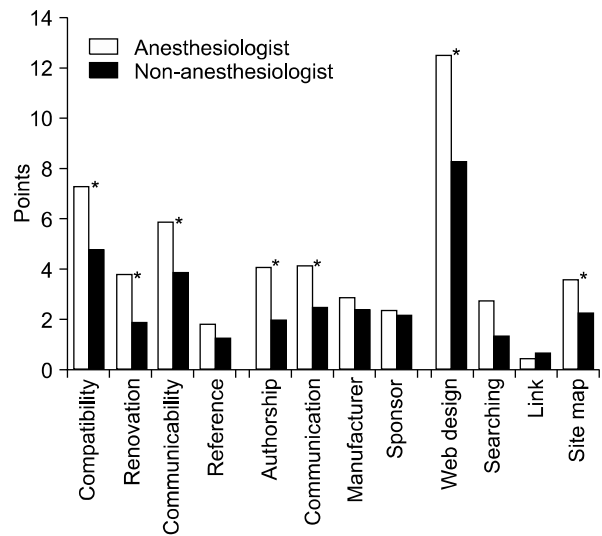


Fig. 2. Comparison of the internet sites' subitem mean score for anesthesiologist and non-anesthesiologist. The score of anesthesiologist's internet sites (compatibility, renovation, communicability, authorship, communication, web design, site map) are higher than that of the non-anesthesiologist's internet sites (*indicates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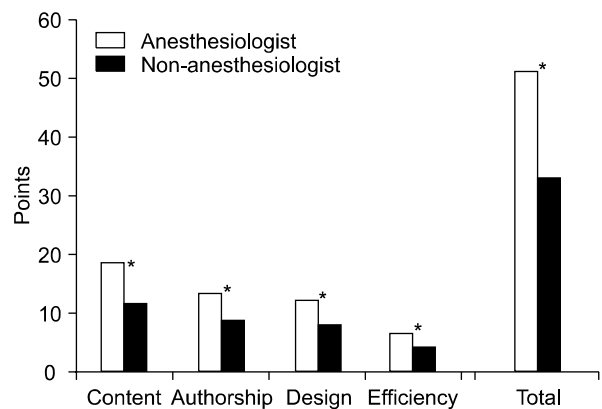


Fig. 3. Comparison of the internet sites' mean score for anesthesiologist and non-anesthesiologist. The score of anesthesiologist's internet sites are higher than that of the non-anesthesiologist's internet sites (*indicates $P < 0.05$).

며 그 외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 점수는 33.2 ± 19.5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마취통증의학과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점수가 높았고($P < 0.05$), 각각의 항목의 비교에서 내용성(18.7 ± 7.4 vs. 11.7 ± 7.9)과 저작성(13.4 ± 4.7 vs. 9.0 ± 6.8), 디자인(12.5 ± 4.2 vs. 8.3 ± 5.2), 기능성(6.8 ± 4.5 vs. 4.3 ± 4.0) 측면에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세부적으로도 내용의 정확성, 최신성, 상담·의뢰성, 저자의 신뢰도, 저자의 연락처, 디자인, 웹구성도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의 점수가 비마취통증의학과가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고 찰

대상포진은 대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 치유되지만 대상포진후신경통으로 이행한 경우 장기적으로 환자가 심각하게 고통 받게 되며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⁵⁾ 또한 대상포진후신경통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성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⁶⁾ 하지만 다수의 환자들은 대상포진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대상포진후신경통으로 이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치료를 받기 시작해 만족할 만한 치료성과를 얻기가 힘들다.⁷⁾

현재의 인터넷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고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덕에 환자들은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료인에게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할 수 있게 되었다.^{4,8)}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상포진과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관한 정보 또한 얻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8년 1년 동안 본원의 통증 클리닉을 찾은 환자의 52%가 본인이나 가족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의료정보를 누구나 올릴 수 있으므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신뢰도가 불명확하고, 그릇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복사되어 퍼지는 수가 있으며 상업적 목적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가 다수 있어 정보가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⁹⁾

본 연구에서 내용상 대상포진에 관한 내용의 기술은 비교적 비슷하였으나 대상포진후신경통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내용점수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이가 대상포진후신경통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 의사나 한의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대상포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관한 내용은 간단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내용면에 있어 한의사들이 제공하는 정보 중 대상포진의 원인과 예후는 비교적 정확하였으나 치료방침에서는 한의사 내에서도 정보의 차이가 많이 발견되었다. 잘못된 정보의 제공은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끼쳐 치료 순응도를 낮출 수도 있다.¹⁰⁾ 마취통증의학, 피부과, 한의학 개원의 사이트와 대학병원 사이트의 질의 및 문답은 있었으나 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은 개원의에 의해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였다. 저자의 신뢰도는 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높았으며, 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에서도 비롯하지만 평가자가 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로 이루어져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많은 건강 관련 웹 문서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¹¹⁾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 역시 대부분이 자료의 출처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관한 정보만을 주로 평가하였으나,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영향력 평가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관한 의료정보에 대한 학회차원이나 국가기관에서의 의료정보관리는 없는 상황이므로 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는 많지 않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비마취통증의학과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보다 더 높았다.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 제공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보다 크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대한마취과학회와 대한통증학회의 학회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Gnann JW Jr, Whitley RJ: Clinical practice. Herpes zoster.

-
- N Engl J Med 2002; 347: 340-6.
2. Jadad AR, Gagliardi A: Rating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navigating to knowledge or to Bable? JAMA 1998; 279: 611-4.
 3. Yoo H, Jang Y: The content evaluation of tobacco cessation information on internet website in Korea. J Korean Soc Med Inform 2003; 9: 431-44.
 4. Sohn AR: Criteria for evaluating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 J Korean Soc Health Stat 2000; 25: 97-107.
 5. Choe H, Han YJ: A clinical study on the treatment of postherpetic neuralgia. Korean J Pain 1990; 3: 131-8.
 6. Sim WS, Choi JH, Han KR, Kim YC: Treatment of herpes zoster and postherpetic neuralgia. Korean J Pain 2008; 21: 93-105.
 7. Galluzzi KE: Management strategies for herpes zoster and postherpetic neuralgia. J Am Osteopath Assoc 2007; 107 (Suppl 1): 8-13.
 8. Al-Bahrani A, Plusa S: The quality of patient-orientated internet information on colorectal cancer. Colorectal Dis 2004; 6: 323-6.
 9. Ilic D, Risbridger G, Green S: Searching the internet for information on prostate cancer screening: an assessment of quality. Urology 2004; 64: 112-6.
 10. Kim YT, Kim SH, Kim JW, Kim DK: Evaluation of colposcopy information on the internet. J Gynecol Oncol 2002; 13: 66-73.
 11. Bergman J, Konijeti R, Lerman SE: Myelomeningocel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s accessible and of variable quality, and requires a high reading level. J Urol 2007; 177: 1138-42.
-